주요개념: 산후간호교육

초산모를 위한 산후간호 교육의 효과

신 혜 숙* · 김 숭 희** · 권 숙 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과 분만, 산욕은 여성의 정상적인 발달과업 중 중요한 과정으로 이러한 생식과정은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이긴 하나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간호를 시행하지 않으면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산욕기는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로부터 회복, 신생아 돌봄과 확대되는 가족을 위한 적응과 책임등 자신과 가족, 신생아의 건강유지를 위해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 많은 학자들은 산욕기 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최연순 등, 1999).

오늘날 병원에서의 임산부의 관리는 주로 산전관리로 임산부나 태아의 이상유무와 이에 따른 의학적 관리에 취중하고 있어 산욕부에 대한 자가간호 능력을 파악하거나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산욕부의 교육은 불충분하며 산욕기 간호에 있어 간호사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교육적 활동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곽연희, 1996).

사회의 변화로 가정이 핵가족화 되면서 산모는 신생아 간호와 산후관리를 스스로 해야하는 실정이고, 산모들이 산후 자가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퇴원하는 실정이어서, 산모가 산후 자가간호와 모성의 역할을 적절히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전영자(1997)는 산욕기 초산모의 간호요구와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초산모들의 자가간호와 육아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높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병원에서의 산후관리의 문제점인 모자의 분리수용, 조기퇴원, 퇴원당일에 실시되는 퇴원교육, 간호사의 인력부족이란 구조적인 문제로 산모들은 임신기간과, 분만 후 산욕기간 동안에 산후 자가간호나 육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서 건강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는데(Strecher et al, 1986) 오늘날 개인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간호사는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 관련 행위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 관련 행위에서 자기효능의 기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관리교육을 제공한 후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산후관리 지식 정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과학부 교수
** 가톨릭대학 성모자애 병원
*** 대동대학 간호과 교수

도와 자기효능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적간호 제공과 산후관리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초산모를 위한 산후관리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산후관리교육 전후의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2) 산후관리교육 전후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3. 연구가설

제 1가설 : 산후관리교육을 제공받은 초산모는 받기 전보다 산후관리 지식 정도가 높을 것이다.

제 2가설 : 산후관리교육을 제공받은 초산모는 받기 전보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산후관리교육 : 임신 및 분만에 의해 생긴 모체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인 변화가 비임신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보통 6주간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으로 입원시 산과 병동에서 연구자들이 개발한 소책자(산욕기에 대한 정의, 산욕기 위험 증상, 오로에 관한 내용, 성생활의 가능시기, 산후운동, 좌욕과 회음부 간호, 신생아 목욕법, 탯줄 관리, 예방접종, 아기의 주변 환경관리, 모유수유 방법, 아기의 이상 증상)를 제공하여 10분간 교육하고, 분만 후 재차 소책자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산모 병실에서 10분간 교육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교육을 말한다.

2) 산후관리 지식정도 : 산욕기에 산모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에 대한 정보와 신생아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해 필요한 모성역할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곽연희(1996)가 사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23개 문항을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욕기에 산모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신생아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해 필요한 모성역할에 대해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로서 연구자들이 개발한 산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 16문항을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조사 대상자가 일개 병원에 입원한 초산모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산후관리 교육

산욕기는 임신과 분만의 신체적, 정신적인 경험으로부터 회복되며 신생아 간호와 확대되는 가족을 위한 적응과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가족과 모아의 건강유지를 위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뒤따르게 되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산욕기 간호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Rubin,1975. Gruis,1977).

산후 건강회복 과정은 정상 생리적 과정이지만 병리적 상태로 변화되기 쉽고, 합병증의 발생이 많아 산욕기 건강회복을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산욕부의 회복정도에 따라 적절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간호실무의 본질은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 시켜주는데 있으며, 요구충족의 방법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간호사나 의료인이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으나 적절한 정보제공으로 자가간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욕기에 제공되는 간호행위는 예방적인 건강행위로 산욕부가 실제적으로 건강한 비임신 상태로 회복되며 신생아의 돌봄을 통하여 아기를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최연순 등, 1999).

이러한 산욕기 간호의 목적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이룩될 수 있으며 상담과 교육은 전문 간호사의 독자적 기능이고 교육을 통해 간호는 질병중심에서 벗어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Armstrong(1989)은 환자교육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란 연구에서 현대간호는 대상자가 자가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책임감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Reeder 등(1997)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고려할 것은 임신, 분만, 산욕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차와 개인의 특수 요구를 파악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주봉(197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욕기 간호 활동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정도와 산모의 간호요구의 내용은 같았으나 간호사들은 실제적인 간호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교육적인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산욕기 간호교육 내용으로는 유방, 오로, 회음부, 방광과 장의 기능, 하지의 순환장애, 식이, 휴식, 산후운동 등의 자가간호 내용과 신생아를 위한 모유수유 증진 및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Williams와 Cooper(1993)는 정상질분만 1,328명과 제왕절개분만 288명인 총 1,616명의 산욕부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프로그램 운영시 나타난 문제의 양상과 빈도를 조사하였다. 정상질분만 산욕부에게 나타난 간호진단으로는 동통으로 인한 안위의 변화에서 회음 절개/열상 358명(36%), 유방울혈 301명(19%),요통 251명(16%) 으로 나타났고, 영양결핍 333명(21%), 배설양상의변화:변비165명(10%), 그 외 감염가능성 151명(9%), 잠재적 손상 151명(9%), 심리적 요구 113명(7%) 등이 나타났으며, 제왕절개분만에서는 동통으로 인한 안위의 변화에서 제왕절개부위 동통 68명(24%), 제왕절개부위 감염가능성 44명(15%)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에서는 비효율적 모유수유 153명(21%), 인공수유와 관련된 영양장애 80명(10%), 영양결핍 233명(15%), 과빌리루빈혈증으로 인한 잠재적 손상 222명(14%) 등이 나타났다.

이미라 등(1973)은 임신부의 교육적 요구 연구에서 산욕기에 알고싶었던 것은 아기의 성장발육, 목욕시키는 법, 유방손질, 산후운동, 신체적 변화, 산욕기의 유의사항, 기타 이상상태의 확인 법이라 했다.

이경혜(1982)는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에서 아기의 양육에 대한 간호요구가 높다고 했다. 또 박영숙(1991)은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출산후 3주까지 산모들은 수유, 목욕, 아기안는법, 기저귀 교환이 서투르고 두렵다고 했다.

Mcclosky와 Bule check(1992)는 간호 수행 전에 간호의 결과, 간호 받은 결과의 반응, 건강상태의 향상, 만족도, 행위, 느낌을 기술해 두면 간호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초기의 모아애착 발달과 모성행위는 산욕초기 모아 접촉과 신생아 양육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 역할 획득이 이루어지며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한 실증적인 지표는 영아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이라고 하였다. (Mercer, 1985)

이미라 외(1973)에서 보면 대부분의 산모가 임신, 분만, 산욕,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산전부터라고 생각하며, 또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로 교육받기를 원하므로 각 병원의 산부인과 외래 진찰실과 산욕기 병실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조미영 (1995)의 연구에서 초산모들의 모아 상호작용의 증진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는 산전, 산후 교육을 통해 모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산후즉시 모아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모아 상호작용을 사정하여 잘못하는 양상을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계속적인 간호지지 체계를 제공함으로서 어머니 역할 적응반응인 모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은 1977년 Bandura에 의해 사회학습이론에서 파생된 이론이며 인간 행동 변화의 주요 결정 인자로 제창된 이래로 심리학, 간호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고 이들 연구에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지되었다. (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88)

Bandura는 그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자기효능 개념을 인간행동 변화의 주요 결정인자로 제안하였으며, 자기효능을 특수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며 다시 말하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은 개인적 숙련성(personal mastery)에 대한 기대로서 적응행동의 시작과 지속에 영향을 주고, 자기효능이 강한 사람은 적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ndura, 1977)

특히 Weitzel(1989), Oh(1993)의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은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의 일반화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Bandura(1986)는 또한 지각된 자기효능성 (perceived

self-efficacy)이란 정해진 업무수준은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김주현, 1995)

Oetker-black과 Taunton(1994)는 수술전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을 수술후의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측정하였다. 구미옥(1992)은 자기효능을 당뇨병 환자가 자기간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이와같이 자기효능을 행위에 적용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을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긍정적 지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Harvery와 McMurray(1994)는 간호학생의 발전과정과 성공적인 과정이수를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간호자기효능(nursing self efficacy)을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기술을 수행하는데 대한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Sallis 등(1986)은 신체활동과 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운동의 선택과 지속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행위를 지속시키는데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건강행위(금연, 체중조절, 알코올중독, 운동)에 자기효능감을 적용한 선행논문 21편에 대한 Steccher, Devellis와 Becker 등 (1986)의 분석에서 자기효능감은 건강행위변화와 유지에 일관성 있게 상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Stencher, Devellis, Becker (1986) 및 Rosenstock 등(1988)과 구미옥, 유재순, 권인각 및 이은옥 (1994)이 자기 효능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건강 행위(식이, 운동, 금연 등), 처방이행, 자기 간호 행위 영역에서 최근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고 그 결과 이 개념은 건강 관련 행위를 선택하고 지속시키는데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지속시키려는 목적에서 자기효능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문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Rosenstocker, Strecher & Becker, 1988)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기효능감 개념은 다양한 건강관련행위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면 자신감을 갖고 계속 노력함으로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위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변수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도 산후간호의 이행관련요인의 하나로 보고 산후관리교육 전후 지식과 자기효능감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산모에게 산후관리교육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지식 정도와 자기효능감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조사설계를 이용한 연구로서 연구설계도는 〈표 1〉과 같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사이의 간격은 자연분만 산모의 경우는 3일이며 제왕절개 산모인 경우는 7일이다.

〈표 1〉 본 연구의 연구설계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O_{E1}	×	O_{E2}

2.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인천시내에 소재하는 1개 대학부속병원의 산과병동에 입원한 초산모34명으로 대상자 선정은 아래 기준에 의하여 편의 표출하였다.

1) 임신 37-42주된 분만진통이 없는 초산모.
2) 건강한 신생아를 분만한 초산모.
3) 분만 및 산욕기 동안 다른 합병증이 없는 초산모.
4)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수락한 초산모.

3. 연구도구

1) 산후관리 지식 측정 도구 :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곽연희(1996)가 사용한 도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이다.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산모자신의 자가간호에 대한 내용 12문항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정도 11문항으로 4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산후관리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9296이였다.

2)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 sherer 등(1982)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 자기효능 척도를 참고로 연구자들이 개발한 산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효능감에 관한 16문항으로 4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863이였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이며 1999.11.15 - 12.9일까지 4주간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병원에 입원한 초산모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산후간호교육은 계획된 교육자료인 소책자를 가지고 입원당일 개별적으로 10분간 실시하였으며 분만 후 퇴원 전일에 2차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후 퇴원당일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보고식으로 기록케 한 후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였고,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산후간호 지식 정도와 자기효능감 정도는 paired t-test로 검정하였다. 또한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별 지식 정도와 자기효능감 정도는 다변량 분석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제특성

대상자의 제특성은 〈표 2〉에서 보는바와 같다. 연령은 21세에서 33세까지 였으며 26-30세까지가 64.7%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35.3%가 대졸이상 이였으며 중고졸이 64.6%였다. 직업은 없는 경우가 67.6%였다. 월수입은 101-150만원(47.1%)이 가장 많았다. 산전진찰횟수는 11-15회(47.1%)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WHO에서 규정한 정상임부의 산전진찰횟수가 15회임을 볼 때 산부의 반 정도는 산전진찰을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자 중 산전관리교육을 받은 경우가 18.1% 산후 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가 14.7%로 산전 후 교육이 부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산전 진찰(1회 이상 97%)과 비교해 볼 때 산전관리에서 주로 산전진찰에만 역점을 두고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전관리가 임산부나 태아의 이상유무와 이에 따른 의료에 취중하고 있다는 이인숙과 박영숙(1991)의 연구와 곽연희와 이미라(1996)의 연구에서 임신부교육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며 전영자(1998)의 연구에서도 산전수진율이 91.5%에 달하였으나 산전교육경험은 낮은 것과 유사하였다. 대상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질적인 간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에 비해 산전 후 교육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규 산전진찰시에는 산전 후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계적인 산전교육과 산후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한편 산후조력자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로 82.4%가 주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형태는 질분만 67.6%이고 제왕절개분만이 32.3%였다.

2. 대상자 제특성별 산후관리 지식점수

대상자의 제특성별 산후관리 지식 정도는 〈표 2〉 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항목은 직업과 산후관리교육이다.

직업이 있는 경우의 지식점수는 89.6 점, 직업이 없는 초산모의 지식점수 83.3점으로 두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t=13.4$ $P=0.00$). 이는 전업주부 보다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초산모에게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임신시 산후관리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의 지식점수는 89.0점, 교육을 받지 않았던 초산모의 지식점수는 84.7점으로 두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t=5.51$ $p=0.02$). 이는 임신시의 산전관리 교육에 산후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삽입하여 같이 교육을 해두면 산후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며 지식의 증가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임신시의 산전관리 교육프로그램에 산후관리 교육내용도 같이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대상자 제특성별 자기효능감 점수

대상자의 제특성별 산후 자기효능감 정도는 〈표 3〉 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항목은 산전관

〈표 2〉 제특성별 산후관리 지식점수

제 특 성		응답수	%	산후관리 지식점수	SD	t. F값 (P값)
연 령	21~25세	9	26.5	85.5	7.2	0.47
	26~30세	22	64.7	84.7	8.1	(0.62)
	31~33세	3	8.8	89.3	3	
교육수준	중,고졸	22	64.7	83.8	7.8	0.25 (0.12)
	대졸이상	12	35.3	88	6.6	
직 업	유	11	32.4	89.6	3.2	13.04 (0.00)*
	무	23	67.6	83.3	8.2	
월 수 입	100만원이하	1	2.9	87	0.0	
	101~150	16	47.1	86.1	6.7	0.14 (0.93)
	151~200	13	38.2	84.3	8.4	
	201만원이상	4	11.8	84.7	10.7	
종 교	유	19	55.8	87.0	6.8	
	무	15	44.1	83.2	8.1	2.34 (0.13)
산전진찰횟수	0	1	2.9	92.0	0.0	
	1~5	3	8.8	78.0	8.6	1.94 (0.13)
	6~10	12	35.3	86.7	6.0	
	11~15	16	47.1	86.3	7.5	
	16~20	2	5.9	76.5	9.1	
산전관리교육	유	6	18.1	86.0	8.4	0.03 (0.84)
	무	28	81.8	85.2	7.5	
산후관리교육	유	5	14.7	89.0	2.5	5.51 (0.02)*
	무	29	85.3	84.7	8.0	
산후조력자	본인스스로	3	8.8	83.3	8.9	0.20 (0.65)
	친정모	21	61.8	85.5	7.2	
	시모	7	20.6	84.7	10.4	
	기타	3	8.8	87.3	1.5	
분만형태	질분만	23	67.6	85.7	6.6	3.58
	제왕절개	11	32.3	84.5	9.5	(0.06)

* $p < 0.05$

〈표 3〉 제특성별 자기효능감점수

제 특 성		응답수	%	자기효능감	SD	t. F값 (P값)
연 령	21~25세	9	26.5	63.8	0.3	1.56 (0.22)
	26~30세	22	64.7	62.3	3.1	
	31~33세	3	8.8	61.0	3.6	
교육수준	중,고졸	22	64.7	62.0	3.3	3.04 (0.09)
	대졸이상	12	35.3	63.7	0.6	
직 업	유	11	32.4	63.1	1.8	1.65 (0.20)
	무	23	67.6	62.3	3.1	
월 수 입	100만원이하	1	2.9	58.0		1.77 (0.17)
	101~150	16	471	63.2	1.3	
	151~200	13	38.2	61.9	3.7	
	201만원이상	4	11.8	63.7	0.1	
종 교	유	19	55.8	62.0	3.4	5.67 (0.23)
	무	15	44.1	63.4	1.3	
산전진찰횟수	0	1	2.9	64.0	0.0	0.39 (0.81)
	1~5	3	8.8	62.0	2.6	
	6~10	12	35.3	62.7	3.7	
	11~15	16	47.1	62.8	2.2	
	16~20	2	5.9	60.5	2.1	
산전관리교육	유	6	18.1	64.0	0.0	5.53 (0.02)*
	무	28	81.8	62.3	3.0	
산후관리교육	유	5	14.7	61.8	2.8	0.01 (0.89)
	무	29	85.3	62.7	2.8	
산후조력자	본인스스로	3	8.8	63.6	0.5	0.47
	친정모	21	61.8	62.9	1.9	(0.70)
	시모	7	20.6	61.8	4.8	
	기타	3	8.8	61.6	4.0	
분만형태	질분만	23	67.6	62.6	3.1	0.55 (0.46)
	제왕절개	11	32.3	62.7	1.7	

* $p < 0.05$

리교육 경험 유무이다. 산전관리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군에서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5.3 p=0.02).

산전관리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초산모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64.0 점, 받아본 경험이 없는 초산모는 62.3 점으로 두 군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영자(1998)의 연구에서 산전교육을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산모 자가간호와 신생아 관리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산전관리교육의 중요성(Reeder 등 1997)을 재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4. 가설검정

1) 제 1가설

"산후관리교육을 제공받은 초산모는 받기 전보다 산후관리 지식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여 지지되었다(t =10.3 p=0.000) (표 4참조).

교육 전의 산후관리 지식점수는 44~89점(평균점수 61.1점) 이며, 교육후의 산후관리 지식점수의 범위는 69-92점(평균 85.3점)으로 산후관리지식점수가 교육 후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t=10.30 p=0.000).

본 연구에서 교육전의 간호지식점수는 92점 만점에 61.1점(백분율 환산 점수는 66.9점)으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곽과 이(1996)의 연구에서 11회이상 산전진찰을 받은 군이 87.2%였으나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다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11회이상 산전진찰을 받은 군이 53.0%였으며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는 산전진찰횟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초산모의 간호지식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산전진찰시 단지 의학적인 진찰에 그치고 산전관리나 산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같이 교육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곽연희과 이미라(1996)도 산후에 시행되는 교육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욕기 자가 간호와 신생 아 양육에 필요한 많은 것을 다루기 부족하므로 임신기간 중에 산후에 대한 준비를 교육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eeder 등 (1997)도 산모가 자가간호와 육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산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4〉 교육전후의 산후관리 지식점수

교 육 전 후	범위	평균	SD	t 값	p 값
교육전 산후간호지식	44~89	61.1	10.6	10.30	0.000
교육후 산후간호지식	69~92	85.3	7.6		

〈표 5〉 교육전후의 자기효능감점수

교 육 전 후	범위	평균	SD	t값	p값
교육전 자기효능감	36~64	51.0	6.9	9.43	0.000
교육후 자기효능감	51~64	62.6	2.8		

산모교육의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시기, 반복교육, 산모의 준비성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교육후 산후관리에 대한 지식증가의 효과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이유는 산후교육내용을 쉽게 풀이한 소책자를 배부하고 분만 전,분만 후 2회의 교육과 입원해있는 동안 매일 읽도록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곽연희과 이미라(1996)의 연구에는 대상자의 74.4%가 대졸이기 때문에 산모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중고졸이 64.7% 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책자를 이용한 본 교육이 효과적임을 볼 때 본 소책자를 기반으로 하여 동영상을 이용한 video 제작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산모 교육을 제공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에 설문지를 통한 지식측정을 통해 각 산모에 따른 퇴원 교육 내용을 선별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2) 제 2가설

"산후관리교육를 제공받은 초산모는 받기 전보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지지되었다(t=9.43 p=0.000). (표 5참조)

교육전 자기효능감 정도는 36~64점(평균 51.0점)이었고, 교육후 자기효능감 점수는 51-64점(평균 62.6점)으로 산후관리교육제공 후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t=9.43 p=0.00). 이는 곽연희(1996)의 연구에서 산모교육이 산후 자신감의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같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지식의증가 정도보다는 자기효능감의 증가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실천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에는 교육전후 자신감에 낮은 점수차가 있었다고 한 곽연희(1996)결과와 유사하였다.

곽연희와 이미라(1996)는 산모들이 자신감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분만 후 했던 교육을 퇴원전 처치시 30분 정도 더 재교육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경혜(1982)와 주숙남(1983)의 연구에서도 산모들은 신생아 양육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신생아 양육은 입원중 2-3일 만에 자신감이 생기기가 어려우리라 보인다.

Cutroran과 Troutman(1986)은 산모가 영아를 양육하는데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와 격려가 중요하다 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위해서는 배우자나 산후조력인을 함께 교육에 참여시켜 산모에게 사회적지지와 격려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본다. 자기효능감은 자기 간호행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구미옥 1994), Mccaul 등(1987)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당뇨병 환자의 자기간호에 대한 강한 예측인자라고 하였듯이 산후초산모들의 자기관리와 신생아 돌봄의 새로운 역할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는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변영순과 김옥수(1999)은 골다공증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생활양식의 관계연구에서 자기효능이 높은 사람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였으며, Sallis 등 (1986)도 자기효능감이 운동의 선택과 지속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행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모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후관리 교육의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1개의 대학부속병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임부중 임신 37~ 42주에 합병증 없이 정상신생아를 분만한 초산모 34명을 대상으로 산후관리교육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전 후의 산후관리지식정도와 자기효능감 정도를 단일군 전후조사 설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병원에 입원한 초산모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산후관리교육은 병동수간호사가 계획된 교육자료인 소책자를 가지고 입원당일 개별적으로 10분간 실시하였으며 분만 후 퇴원 전일에 2차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후 퇴원당일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보고식으로 기록케 한 후 회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특성별 산후관리 지식 정도는 직업유무별($t=13.04$ $p=0.00$), 산후관리교육 유무별($t=5.51$ $p=0.02$).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제특성별 자기효능감 정도는 산전관리교육 경험유무별($t=5.53$ $p=0.02$)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가설검정

   1) 제 1가설; 산후관리교육을 제공받은 초산모는 받기 전보다 산후관리 지식 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10.30$ $p=0.000$).

   2) 제 2가설; 산후관리교육을 제공받은 초산모는 받기 전보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t=9.4$ $p=0.000$).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소책자를 이용한 본 교육이 효과적임을 볼 때 본 소책자를 기본으로 하여 동영상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한다면 차세대인 영상세대에게 맞는 간호교육이 되며 교육의 효과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산후간호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병원입원시보다 퇴원후에 더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원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3) 산전교육 프로그램에 산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곽연희 (1996). 산모교육의 효과 측정 : 산욕기 자기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 정도와 자신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연희, 이미라 (1996). 산모교육의 효과 측정-산욕기 자가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46-255.

구미옥, 유재순, 권인각, 김혜원, 이은옥 (1994). 자기효능이론이 적용된 건강행위관련 연구의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4(2), 278-302.

구미옥 (1992). 당뇨병 환자의 자기간호행위와 대사조절에 관한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구미옥 등 (1997). 자기효능감의 개념 분석. 간호학논문집, 11(1), 106-117.

김주현 (1995). 혈액투석환자에게 적용한 지시적 심상요법의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김혜숙 (1996). 병원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비한 산욕부 및 신생아 가정간호 기록지 개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 21-35.

김혜숙, 최연순, 장순복, 정재현 (1995). 임부교실운영 효과 분석을 위한 일 연구. 대한간호, 34(3), 85-96.

김혜원, 황문숙, 홍경자 (1998). 산욕초기 초산모의 모성정체성과 영아 돌보기 활동자신감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1), 65-77.

민애경 (1997), 월경전 증후군 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1). 31-40.

박영숙 (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주봉 (1978). 산모와 간호원의 산욕기 간호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8(1), 154-162.

변영순, 김옥수 (1999). 골다공증 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생활양식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3). 530-540.

성미혜 (1983). 간호원의 산욕기 간호에 대한 역할 인식과 산모의 간호요구에 관한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혜 (1982).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2(2), 67-79.

이미경 (1990).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이 산모의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미라, 홍경자, 문혜리 (1973). 임산부의 교육적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25(6), 721- 728.

이수연 (1990). 임신말기 임신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29(3), 64-74.

이숙희, 박영숙 (1998). 여성건강에 관한 간호분석 : 1988-1997.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1), 105-120.

이영숙, 심미정, 이숙희 (1994). 산후여성의 기능적 상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1). 64-77.

이인숙, 박영숙 (1996). 임부의 건강인식과 자가간호.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0(1), 11-24.

장미영, 서문자 (1997). 혈액투석환자의 건강관련 강인성, 자기효능감과 이행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1(1), 84-105.

전산초 (1974). 전인간호의 임상학적 분석과 실행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4(1), 1-19.

전영자 (1997). 초산모의 간호요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1), 5-21.

전영자 (1998). 초임부의 교육 요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2), 187-201.

전은미 (1994). 산욕부와 신생아의 가정간호 사례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3-11.

조미영 (1995). 모아산후작용 과정의 진행양상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학회지, 1(1), 5-22

주숙남 (1983). 산욕기 산모가 요구하는 간호사의 건강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연순, 장춘자, 조희숙, 최양자, 장순복, 박정숙, 이남희, 조동숙, 이은희 (1999). 여성건강간호학, 수문사, 674-724.

하영수, 이경혜 (1991). 모성 및 부인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Armstrong, M. (1989). Orchestrating the process of patients education method & approach.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4(3), 592-611.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Hall.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 efficacy : A medit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DuGas, W. (1977). Introduction to patient car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ursing care. 3rd ed, New York, W.B. Saunders Co.

Ewart, C. K., Taylor, C. B., Reese, R. B., & DeBusk, R. F. (1983). Effects of Early Postmyocardial Infarction Exercise testing on Self-perception and Subsequent physical activity. the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 51, 1076-1080.

Gruis, M. (1977). Beyond maternity :

Postpartum concerns of mothers. Maternal -Child Nursing, 5/6, 182-188.

Harvey, V, & Mcmurray, N.(1994). Self-efficacy: A means of identifying problems in nursing education and career prog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1(5), 471-485.

Hickey, M. L,. Owen, S. V., & Froman, R. D. (1992). Instrument development : Cardiac diet and exercise self-efficacy. Nursing Research, 41(6), 647-351.

McClosky. J. C., & Bulecheck, G. M. (1992).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Mosby.

McCaul, K. D., Glasgow, R. E., & Schafer, L. C. (1987). Diabetes Regimen Behaviors. Medical Care, 25(9), 868-881.

Mercer, R. T. (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t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Research, 34(4), 198-204.

Moss, J.R.(1981). Concern of multiparas on the third postpartum day J. O. G. N. N., 10(5), 421-466.

Oetker-Black, S. I., & Taunton, R. L, (1994). Evaluation of a self efficacy scale for preoperative patients, AORN, 60(1), 43-50.

Oh, Hyun-soo (1993).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of Korea Women with Arthriti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octoral dissertation.

Rubin, R. (1975). Maternity nursing stops too soon. A.J.N., Oct, 1680-1684.

Reeder, S. J. Martin, L. L., & Koniak-Griffin, D. (1997). Maternity Nursing : Family, newbone, and womens health(18th Eds) Lippincott Co.

Rosenstock, I. M., Strecher, V .J., and Becker, M. H. (1988). Social learning theory and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Quarterly, summer, 175-183.

Sallis, J. F., Haskell, W. L., Fortman, S. P., Vranizan, K. M., Taylor, B., & Solomam, D. S. (1986). Prediction of adoption and maintenance of physical activity in community sample. Preventive medicine, 15, 331-341.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Dunn, S. P.,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Strecher, V. J., Devellis, B. M., Becker, M. H., Rosenstock, I. M. (1986). The Role of Self-Efficacy in Achieving Health Behavior Change, Health Education Quarterly, 13(1), 73-91.

Weitzel, M. H. (1989). A Test of the of the health promotion with blue color workers. Nursing Research, 38(2) : 99-104.

Williams, L. R., & Cooper. M. K. (1993). Nurse-managed postpartum home care.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22(1), 25-31.

- Abstract -

Key concept : Postpartal care

The Effects of Education on Primiparas` Postpartal care

Shin, Hye Sook · Kim, Sung Hee***
*Kwon, Sook Hee****

The study was to find whether the educational program contributed to increase of knowledge and self-efficacy of the postpartal

* Professor, School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Our Lady of Mercy Hospital
*** Professor, Dep. of Nursing DaeDong College.

primiparas. This study aimed at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effect for postpartal primiparas.

The Subjects were 34 primiparas who were admitted to the obstetric ward in a University hospital from November 15th to December 9th, 1999. The Subjects were those who had no labor pain at the admission time, had no complications during labor and delivery and, gave birth to a healthy baby.

They were tested on knowledge and self-efficacy two times, one at the admission time and prior to discharge. After the first test nurses in a maternity ward taught them on postpartal care.

Two tools were developed by authors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e test tool for knowledge of postpartal care consisted of 23 items. The test tool for self-efficacy of postpartal care consisted of 16 items.

Analysis of demographic data were analyzed with calculation of percentage. Score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test and the second test were analyzed with paired t-test.

The Spss (Win 8.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re were not significant influenc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imiparous to pre-educational knowledge. There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imiparous to post-educational knowledge : occupation ($t=13.04$, $p=0.00$), postpartal education ($t=5.51$, $p=0.02$).
2. There were not significant influenc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imiparous to pre-educational self-efficacy. There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imiparous to post-educational self-efficacy : antenatal education ($t=5.53$, $p=0.02$)
3. Primiparas' knowledge of postpartal car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education ($t=13.04$, $p=0.00$)
4. Primiparas' self-efficacy of postpartal car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education ($t=5.51$, $p=0.02$)
5.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self-efficacy was $r= .360$ ($p=0.03$)

We suggest follow-up studies to find whether primiparas' self-efficacy will last after discharge or not.